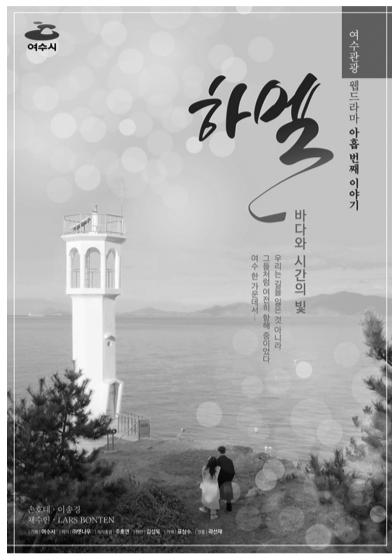


여수관광 웹드라마 '하멜' 오늘 베일 벗는다



여수 배경 휴먼 판타지 로맨스 30일 시사회 후 유튜브서 공개

아홉 번째 여수관광 웹드라마 '하멜' 예고편이 17일 오후 6시 여수관광 SNS '힐링여수야'에서 공개된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웹드라마 하멜'은 네덜란드 하멜표류기에 기반한 휴먼 판타지 로맨스다. 낭만도시 여수를 배경으로 MZ세대의 사랑과 애환을 그려나가는 이야기다.

여행 작가인 주인공이 하멜의 탈출을 도와주며 조선시대 과거와 현실

을 오가며 일상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삶의 의미를 되찾는 내용이다.

총 5화로 구성된 웹드라마로 1화는 고장난 나침반, 2화는 시간간의 왜곡, 3화는 사라진 일상, 4화는 모두가 이방인, 5화는 바다와 시간의 빛이다.

특히 여수 밤바다를 대표하는 포토 스팟인 하멜 등대와 아름다운 여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화양면 봉화산과 선소, 하멜 전시관, 일레븐 브릿지, 큰끝등대, 자산공원 등 여수의 명소와 관광지를 영화에서 만날 수 있다.

신영자 관광과장은 "이번 웹드라마는

네덜란드 하멜을 소재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확보, 웹 드라마의 세계화를 통해 2026여수세계박람회와 제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 홍보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또한 여수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웹드라마에 녹여내 여수 브랜드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오는 30일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하멜' 시사회를 개최한 후 오후 12시에 여수 관광 SNS '힐링여수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순천시,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5월까지 대형 사업용 차량 대상

순천시가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까지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해 순천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평소 공동주택단지 주변 이면도로, 공원 인근 등에 대형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차가 빈번해, 사고위험·통행불편·소음·공해 등의 민원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과징금 20만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야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2회 제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불법 밤샘 주차한 사업용 차량 33건을 적발하여 이 중 1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구례군, 친환경 포충기 일제 정비 해충 유인기 추가 설치

구례군은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충의 활발한 조기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군 전역의 친환경 포충기를 일제 정비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구례군 보건의료원은 포충기 18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례읍 강변길, 문척면 마을회관, 광의면 유산각 등 5개소에 해충 유인기를 추가 설치했다.

해충 유인기는 포충기로도 불리는 물리적 방제기로 방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치는 해충을 유인하는 빛과 자외선 파장(350mm-400mm)을 이용해 모기, 동양하루살이, 갈따구 등의 날벌레를 유인해 퇴치한다. 유인기 내 1차 팬의 흡입력으로 해충을 빨아들인 후, 2차 팬으로 해충을 타격해 잔해를 아래로 배출하는 구조다.

또 군 보건의료원은 기온 상승에 따른 해충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17개 자율방역단과 함께 주거 밀집 지역과 5일시장 주변 하수구·오수관에 유충구제 약품을 투입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봄철 부주의 화재 예방 홍보 장흥소방서

장흥소방서(서장 최동수)는 16일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담배꽂초 화재 등 부주의 화재 예방 홍보에 나섰다

봄철은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 낮은 습도로 화재 발생률이 높고 담배꽂초로 인한 부주의 화재, 산불 및 임야 화재가 많이 발생하며, 지역축제 등 단체 행사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부주의 화재의 주요 요인은 담배꽂초 투기,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이 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꽂초는 불씨 제거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쓰레기 소각 및 논·밭 태우기 금지 △음식물 조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등 일상생활 실천이 절실하다.

최동수 장흥소방서장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미니갤러리서 주민작품 전시 순천시 왕조1동

순천시 왕조1동(동장 정학규)은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 '마음실음 미니갤러리'를 열어 분기별로 주민들의 작품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는 재활시설인 '순천 디딤밭'에 입소하고 있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참여해 정서적 치유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특히 오일 파스텔을 이용한 초크아트 작품은 색감이 매우 화려하고 강렬하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반려동물과 주변 사물들이 주제가 되어 동사무소 방문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과 문화 체험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디딤밭 시설 관계자는 "미술 활동이 입소자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됐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동사무소에 작품이 전시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왕조1동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재활시설 입소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왕조1동은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 '마음실음 미니갤러리'를 열어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순천시 제공

여수시, 미국 씨트레이드 크루즈 박람회서 마케팅

전 세계 580여개 선사 참가 여수 관광 홍보·상담 실적

여수시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4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Seatrade Cruise Global)'에 참가해 국제 크루즈 유치에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은 국제 크루즈 산업과 관련된 전 세계 120여 개국 및 580여 개 선사 등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서 여수시는 부산·인천·강원 속초·제주 등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와 합동으로 참가, 여수항을 홍보하는 데에 주력했다.

해의 주요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여



여수시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4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에 참가해 국제 크루즈 유치 마케팅을 펼쳤다.

여수시 제공

수항 인프라와 여수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2026여수세계박람회

마케팅 개최로 주목받는 동북아 크루즈 최적지임을 적극 알렸다.

특히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크루즈 컨설턴트 협회(Cruise Professional Advisors Alliance, CPAA)'와 함께 주요 선사를 대상으로 B2B 상담을 진행, 로열 캐리비언(Royal Caribbean), 실버씨(Silversea) 등 7개 선사와의 상담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최윤기 MICE산업팀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국제 크루즈 선사와의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고, 국제 크루즈항으로서 여수항의 경쟁력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이러한 유치기반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체계 강화 등 국제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 안양농협, 반찬나눔 봉사

장흥안양농협(조합장 김명중)과 농가주부모임은 지난 12일 사랑의 염색봉사와 행복나눔 반찬봉사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원로 조합원 및 소외 계층분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마련됐다.

염색봉사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염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원로 조합원을 위주로 안양영농회 2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렸다.

백영심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중 안양농협 조합장은 "행복 나눔 반찬봉사활동을 위해 수고한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순천시 '스마트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 참가

순천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수원 광고)에서 열리는 '2024년 Y-Farm Expo, 스마트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농협과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 창업 및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푸드테크의 혁신을 통한 미래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제공하는 자리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귀농인 이사비용, 주민초청행사, 소형농기계, 주택수리비 지원정책과 더불어 귀농귀촌 길잡이교육 등 현재 시행 중인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한다.

순천시로의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1대1 맞춤 귀농귀촌 상담 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귀농귀촌 책자와 리플릿, 기념품 등을 제공한다.

또 순천만 소금, 매실청, 고들빼기김치, 전통주와 같은 순천 로컬푸드 전시와 더불어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란 테마로 지난 1일 개막한 순천만국가정원과 주요 관광지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살기 좋은 도시, 대한민국 생태수도인 순천에서 안정적인 귀농귀촌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